

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현장 캠페인 실시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축제장에서 150여명 참여 물놀이 안전수칙·폭염 대비 행동 요령 등 안내

곡성군이 지난 15일부터 17일 개최된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축제장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 및 코로나19 사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상철 군수를 비롯해 곡성군 관계자와 곡성군 민관협력위원회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물놀이 안전 수칙과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며 여름철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힘을 쏟았다.

이에 앞서 곡성군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섬진강과 보성강 주변에 인명 구조함 설치, 위험 안내 표지판, 물놀이

이 현수막 등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다습기 채취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용 부채 등을 배부했다. 앞으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및 교체로 통해 안전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재유행 억제를 위해 스스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KF-94 마스크를 배부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을 당부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방역 홍보용 수건, 부채 등



도 배부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피서지는 물론 일상 생활 공간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다. 곡성=양혜영기자



화순군, 복숭아 품종 보급 '첫 결실'... 품종 첫 출하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해 온 국내 육성 복숭아 품종을 올해 처음으로 수확을 시작했다.

군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국내 육성 복숭아 품종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화순은 복숭아 주산지로서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수확기 집중에 따른 노동력 분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 10ha 규모의 농장에서 보급 품종을 재배했다.

7월부터 출하가 시작된 품종은 백육계 '홍백', 황육계 '금황', 천도계 '스위트퀵'과 '엘로드립'이다.

엘로드립은 껍질째 먹는 당도 높은 천도복숭아로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국내 최초의 스위트버터린(달콤한 천도) 품종이다. 금황은 7월 초 수확하는 조생종 황도복숭아로 과실의 크기가 300g 이상인 대과종이다. 7월 하순부터는 홍백과 스위트퀵도 출하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농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첫 발

2026년까지 5년 간 354억원 투입... 농촌 정주여건 개선, SOC확충 등

나주시가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354억원 규모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첫 발을 댔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활성화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지난 해 농촌협약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20개 시장·군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농촌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공동 목표인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정사업으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시·군 주도도 농촌 공간과 생활권 분석을 통해 농촌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농촌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를 구분해 가장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에 중점을 둔다.

앞서 나주시는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영산강변', '원도심', '혁신도시' 3개 생활권을 구분하고 지난 2021년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중 영산강변생활권(공산·왕곡·반남·동강·세지)을 우선 생활권으로 선정하고 농식품부와 최종 합의와 이날 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354억원(국비230억·시비124억) 규모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365생활권 조성을 위한 SOC확충을 목표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촌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100원택시)' 등을 추진한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실시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구례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전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함께 2022년 청소년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을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57회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각종 디지털 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온라인 상에서 지켜야 할 디지털 예절, 성인인,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 방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나 친구들이 디지털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고 하고,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112, 117, 1366, 1388, www.cyber1388.kr 등)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담빛꿈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선비문화 체험활동 통해 생활 예절 익혀

담양군 담빛꿈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6일 장평향교에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선비문화 체험을 통해 전통 예절 및 충·효 사상을 배우고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마련됐으며, 유림복을 입는 법과 선비체험을 통해 생활 속 예절교육을 익혔다.

참여 학생들은 충·효·예의 기본교재인 사자소학을 낭독하고 효행의 실천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청소년들은 "평소에 입어볼수 없는 유림복을 입으니 움직임도 낯설고 마음까지 달라져 행동도 점잖게 하게 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